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요한한, 《엮는 자》
Yohan HÀN, *Métissage*



요한한, 《엮는 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 Yohan HÀ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전시작가 : 요한한(Yohan HÀN, b. 1983)
전시제목 : 《엮는 자》 *Métissage*
전시일정 : 2025년 4월 23일(수) – 6월 7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전시작품 : 조각, 설치, 영상 20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SEOUL → 202502423-20250607 요한한, 엮는 자

<u>자료목차</u>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
	3. 작가노트	-----	3
	4. 작품소개	-----	4
	5. 전시전경	-----	5
	6. 작가소개	-----	6
	7. 작가약력	-----	6-7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5년 4월 23일(수)부터 6월 7일(토)까지 **요한한**(Yohan HÀN, b. 1983) 개인전 《**엮는 자**》를 연다. 요한한은 조각적 오브제와 퍼포먼스, 미디어 설치 등 미술의 형식을 통하여 '신체'와 '행위'를 매개로 한 직관적 감각의 형태를 탐구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과 4층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작된 그의 작품 20점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가 "과거와 미래가 공명하는 현재의 순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제작한 결과물들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2. 전시주제

메티사주(Métissage)

요한한이 이번 전시의 주제어로 삼은 '메티사주(Métissage)'는 프랑스어로 '혼합'의 의미를 지닌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융합하며 새로운 정체성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요한한의 작품세계는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문화 속 원시적 제의와 토속신앙에서 발견되는 소재들을 동시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 감각 경험과 연결 짓는다. 작가는 디지털 요소가 신체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한편, "물리적 현존이 사라지는 시대"에 여전히 지속되는 "신체적 감각"에 관하여 질문한다. 요한한의 작업은 공명과 감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물질적 신체 간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대해 탐색한다.

물질과 비물질, 신체와 영혼을 잇는 북

요한한 작업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물의 외피를 재료 삼아 제작한 '북'으로, 악기적 요소를 지닌 타악기이자 다양한 문화권의 토속신앙에서 주술적 무구(巫具)로 활용되었던 오브제이다. 북은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육체와 정신을 매개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공명과 의례적 소통을 가능토록 하는 상징적 도구로서 여겨져 왔다. 그는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북 메우기'의 기술을 자신의 작업 과정에 차용하고, 퍼포먼스를 통하여 잊힌 몸짓을 되살리는 등 신체적 행위를 통한 촉각적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요한한에게 피부는 단순한 신체의 표면을 넘어,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감각의 경계이자 통로다. 변태와 탈피를 반복하는 피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의 표면성을 상징하며, 피부를 통한 촉감은 다른 감각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사람과 사물은 이 피부를 통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그는 피부를 꿰매고 서로 다른 층위를 엮어내는 행위를 통해 물리적 교감과 감각적 각성을 이끌어낸다.

3. 작가노트

아르카익한 공명: 신체를 통한 시간의 조각

요한한

나의 작업은 디지털 매개 환경 속에서 신체적 감각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형되는지를 탐구한다. 퍼포먼스, 조각, 오브제 설치를 통해 신체를 하나의 살아 있는 매체로 다룬다. 이 신체는 시간, 기억, 흔적, 제의의 층위들 속에서 공명하는 존재이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사유다. 시간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저항하는가? 나는 이러한 질문들을 직관적인 몸짓, 움직임, 피부, 춤, 그리고 신체화된 의례를 통해 접근한다. 내게 있어 '원초적'(primitive)이거나 '아르카익'(archaic)한 예술은 단지 과거를 향한 향수가 아니라, 해방의 잠재력을 지닌다. 그것은 동시대 경험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감각의 기반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주요한 작업 중 하나는 '소리의 잠재성'을 품은 조형 오브제로써 주로 동물의 외피를 사용하며, 전통적인 북춤 메우기 기법을 차용한다. 여러 문화권에서 북은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 육체와 정신을 매개하는 도구가 되어왔다. 이 오브제들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시간의 그릇이자, 고대의 신체적 기억과 비물질화된 현재 사이의 긴장을 담는 저장소가 된다.

나는 디지털 추상성과 물질의 무게가 만나는 하이브리드한 공간 속에서, 촉각적 소통, 공명, 신체적 현존이 여전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한다. 점점 더 온라인 신체감각에 익숙해지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원초적 감각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며, 어떤 형태로 다시 출현하는가?

내 작업은 과거로의 회귀를 제안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시간적 혼성의 장을 구성하고자 하며, 퍼포먼스를 통해 이러한 교차는 더욱 증폭되며, 신체는 결국 시간 그 자체를 담은 조형적 표면으로 변모한다. 이 작업들은 일종의 지각 실험이다. 아르카익한 공명과 동시대의 해체가 충돌하는 그 접점에서, 새로운 감각의 방식, 새로운 기억과 존재의 형태를 모색한다.

4.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 Yohan HA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대표이미지



요한한
 <메타모포시스>
 2022-2025
 동물 외피, 천연안료
 가변설치



요한한
 <세 연주자>
 2025
 메트로놈, 북피,
 오디오 장치
 가변설치



요한한
 <엮는 자-성운 같은
 채식주의자>
 2025
 목재, 동물 외피,
 염료, 과슈, 실
 191.5 x 105 x 9 cm



요한한
 <축시丑時>
 2025
 목재, 동물 외피,
 염료, 과슈, 실
 160 x 36 x 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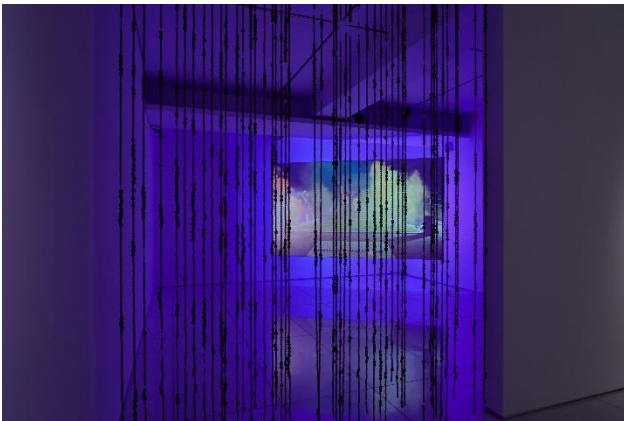
요한한
 <님프>
 2025
 목재, 동물 외피,
 염료, 과슈
 160 x 35 x 6 cm



요한한
 <해시亥時>
 2025
 목재, 동물 외피,
 염료, 과슈
 25 x 45 x 9 cm

5.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한, 《엮는 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6. 작가소개



요한한은 1983년 프랑스 트라프에서 태어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파리1대학 팡테옹 소르본 조형예술학과 석사를 취득한 후 2019년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국가조형예술학위를 받았다. 수림큐브(서울, 한국, 2023), 팔리아먼트 갤러리(파리, 프랑스, 2022), 갤러리조선(서울, 한국, 201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청주시립미술관(청주, 한국, 2025; 2020), 국립현대미술관(청주, 한국, 2023),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2021), 금호미술관(서울, 한국, 2021), 풍피두 센터(파리, 프랑스, 2017), 국경 없는 예술 공간(파리, 프랑스, 2015; 2014), 피에르 가르탱 예술공간(파리, 프랑스, 2014) 등에서 진행된 다수의 단체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금천예술공장,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랑스 파리 라 제네랄과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 등에 입주하여 작업한 이력이 있다. 청주시립미술관 등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7. 작가약력

요한한

1983년 프랑스 트라프 출생
한국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16 파리 1 대학 팡테옹 소르본 조형예술학과 석사, 파리, 프랑스
2019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국가조형예술학위, 세르지, 프랑스

주요 개인전

2025 메티사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3 포: 롬-또 다른 시간을 위한 숲, 수림큐브, 서울, 한국
2022 몸살풀이, 팔리아먼트 갤러리, 파리, 프랑스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수림아트센터, 서울, 한국
프로토스 인디지너스, 미학관, 서울, 한국
2021 공명의 원리, 보안여관, 서울, 한국
2020 신체가요,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9 공명동작, 갤러리조선, 서울, 한국
2017 루틴, 아틀리에 렘, 파리, 프랑스

주요 단체전

- 2025 특별할 것,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 2024 명료한 서술을 지우니 또 다른 지도가 드러났다 파트 2, 갤러리조선, 서울, 한국
세레모니, 아시아 나우 래디컨츠 특별기획전, 파리 화폐 박물관, 파리, 프랑스 루나 이펙트: 거울과 돌, 컵자국으로 만든 별자리,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바로니안 인바이트 팔리아먼트 갤러리, 바로니안, 브뤼셀, 벨기에
- 2023 우리의 세계가 만나는 곳, 파리 국제예술공동체 오픈스튜디오 기획전, 파리, 프랑스
수피 춤을 추자!, 문화비축기지, 서울, 한국
- 2022 모두 다른 빛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한국
중간계: 생-산, 답십리 고 미술상가 이랜드 구사옥, 서울, 한국
- 2021 젊은 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한국
트리플 링즈: 복각본들, 어제 글피로부터, 문화역서울 284, 서울, 한국
하나의 점 모든 장소,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궤적들, 웨마미술관, 청주, 한국
- 2020 미디어 심포니,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 2019 쓰레드 볼륨 II: 또 다른 동작을 위한 플로어, 문래예술공장, 서울, 한국

퍼포먼스/프로젝트

- 2023 시월상달의 춤, 유세미나에서 지구까지 전시 연계 퍼포먼스, 문래예술공장,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다원예술 2023: 릴레이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청주, 한국
- 2022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전시 연계 퍼포먼스, 수림아트센터, 서울, 한국
- 2021 젊은 모색 전시 연계 퍼포먼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한국
- 2017 뮤지엄 라이브 #5, 풍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뉘 들라 크레아송, 베르사유시립미술학교, 베르사유, 프랑스
- 2016 뉘 블랑슈 프로젝트 오프, 생 클로틸드 대성당, 파리, 프랑스

레지던시

- 2025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9 기, 서울, 한국
- 2024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5 기, 서울, 한국
- 2023 국립현대미술관 X 센터 클락 국제 교류 레지던시, 몬트리올, 캐나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 파리, 프랑스
- 2022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18 기, 고양, 한국
- 2020 금호문화재단 금호창작스튜디오 16 기, 이천, 한국
- 2019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3 기, 청주, 한국
- 2016 라제네랄 레지던시, 파리, 프랑스

소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ARARIO GALLERY SEOUL

Yohan HÀN, *Métissage*



Installation view of *Yohan HÀN: Métissag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Artist	: Yohan HÀN (b. 1983)
Title	: <i>Métissage</i>
Dates	: 23 Apr – 7 Jun 2025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Artworks	: 20 artworks in total, including sculptures, installations, and videos..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ECGbe4_aHLgIhwdSP8_MH38rOEn0InY?usp=drive_link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E. info@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2
	2. Exhibition Theme	-----	2
	3. Artist Statement	-----	3
	4. Artworks	-----	4
	5. Installation View	-----	5
	6. Artist Introduction	-----	6
	7. Artist CV	-----	6-8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Yohan HÀN's** (b. 1983) solo exhibition ***Métissage*** from 23 Apr (Wed) – 7 Jun (Sat) 2025. Yohan HÀN explores forms of intuitive sensation through the body and action, working across sculptural objects, performance, and media installations. This exhibition, presented across the 3rd and 4th floors of ARARIO GALLERY SEOUL, features 20 works created between 2022 and 2025. This exhibition showcases a wide range of works that emerge from his ongoing exploration of “constantly experimenting with new forms in the present moment, where the past and future resonate.”

2. Exhibition Theme

Métissage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Métissage*, is a French term meaning “mixing” or “blending.” It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different elements come together to create new identities and discourses through fusion. HÀN's practice forges connections between elements rooted in primitive rituals and indigenous belief systems and the sensory experiences shaped by today's digital media environment. He examines how digital technologies alter our perception of the body, while interrogating the endurance of “physical sensation” in an era where “physical presence is increasingly elusive.” His work centers on the concepts of resonance and sensation, exploring how modes of communication between material bodies are transformed within the digital environment.

A drum that bridges the material and immaterial, the corporeal and the spiritual

One of the key elements in HÀN's work is the drum, crafted from animal hide. It serves not only as a percussive instrument but also as an instrumental object used in shamanistic rituals across various indigenous cultures. The drum has been regarded as a symbolic instrument that mediates between the visible and invisible realms, as well as the corporeal and the spiritual. It enables communal resonance and ritual communication. Drawing from diverse drum-making traditions, HÀN integrates these techniques into his creative process, using performance to reactivate forgotten gestures and to engage audiences through tactile, embodied interaction.

For HÀN, skin is not merely the body's surface but a sensory threshold—an interface between the inner self and the external world. Through its constant processes of transformation and renewal, the skin becomes a symbol of the body's ever-shifting boundary. Touch, mediated through the skin, acts as a conduit for sensory experience, allowing people and objects to encounter each other on a deeper, more intimate level. By stitching skin and layering its textures, HÀN evokes physical connection and sensory awakening, inviting viewers into a space of shared vulnerability and embodied empathy.

3. Artist Statement

Archaic Resonance: Sculpting Time through the Body

Yohan HÀN

My practice explores how bodily sensation persists and transforms within digitally mediated environments. Through performance, sculpture, and object-based installation, I engage the body as a living medium—one that resonates across temporal layers of memory, trace, and ritual.

Art, in its essence, is a reflection on time: how it is preserved, how it moves, and how it resists. I approach these questions through intuitive gestures—movement, skin, dance, and embodied ritual. For me, what is considered “primitive” or “archaic” in art is not a nostalgic return to the past, but a potential for liberation. It reconnects us to a sensory foundation that continues to pulse beneath the surface of contemporary experience.

A key component of my work involves sculptural objects embedded with sonic potential. These are often created using animal skin and a traditional drum ‘Buk Meugi’, stretching technique. Across various cultural contexts, drums have served as mediating tools bridging the visible and invisible world,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These objects, therefore, become more than instruments; they serve as vessels of time, containers of tension between ancient bodily memory and the dematerialized present.

Within this hybrid space where digital abstraction meets material weight, I examine how tactile communication, resonance, and physical presence continue to operate. In a system increasingly attuned to online sensory perception, how do our primal senses adapt, survive, and re-emerge in new forms?

My work does not propose a return to the past. Instead, it constructs a temporal métissage, a hybrid field where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sect. Through performance, these intersections are amplified, transforming the body into a sculptural surface of time itself. Ultimately, these works are perceptual experiments attempts to explore new ways of sensing, remembering, and being at the threshold where archaic resonance collides with contemporary dislocation.

4. Artworks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 Credit for all Artwork Images: © Yohan HÀ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Main Images

Yohan HÀN

Metamorphosis

2022-2025, Animal skins, natural pigment, Variable dimension



Yohan HÀN

Three Musicians

2025, Metronomes, drum skins, Audio dispositif, Variable dimension



Yohan HÀN

Les Métisseurs-Nebulous Vegetarian

2025, Wood, animal skins, dye, gouache, thread, 191.5 x 105 x 9 cm



Yohan HÀN

Chukshi

2025, Wood, animal skins, dye, gouache, thread, 160 x 27 x 6 cm



Yohan HÀN

Nymphs

2025, Wood, animal skin, dye, gouache, 160 x 35 x 6 cm



Yohan HÀN

Haeshi

2025, Wood, animal skins, dye, gouache, thread, 25 x 45 x 9 cm

5. Installation View

※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 Credit for all Artwork Images: © Yohan HÀ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3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3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4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4F)

6. Artist Introduction



Yohan HÀN was born in 1983 in Trappes, France, and is currently based in Seoul, Korea.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Department of Arts from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in 2016 and earned the National Diploma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in 2019.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venues including Soorim Cube (Seoul, Korea, 2023), Parliament Gallery (Paris, France, 2022), and Gallery Chosun (Seoul, Korea, 2019). He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nd projects at institutions such as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25; 202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Korea, 202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21),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1),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2017),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France, 2015; 2014), and Espace Pierre Cardin (Paris, France, 2014). His residency experience includes MMCA Goyang Residency, Art Space Geumcheon, SeMA Nanji Residency, La Générale (Paris), and th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His works are included in collections such as the Cheongju Museum of Art.

7. Artist CV

Yohan HÀN

Born in 1983, Trappes en Yvelines, France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ducation

2016 MFA Department of Arts,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Paris, France
2019 Diplôme National d'Art,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Paris-Cergy, Cergy,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5 Métissag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3 Բ.ԽՅՄ-union for another chronicle, Soorim Cube, Seoul, Korea
2022 Momsalpuli, Parliament Gallery, Paris, France
Méné Méné Tekel Upharsin, Soorim Art Center, Seoul, Korea
Protos Indigenous, Philosopher's Stone, Seoul, Korea
2021 The Principle of Resonance, Art Space Boan, Seoul, Korea
2020 Somatic Drumming,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9 Inside Resonance, Gallery Chosun, Seoul, Korea
2017 Routine, Atelier Rhème, Paris, Fra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Journey to Distinction, Cheongju Museum of Art, Cheonju, Korea
2024 As the Sharp Narrative Fades: A Revealing Map Emerges Part 2, Gallery Chosun, Seoul, Korea

- Ceremony, Special exhibition in Asia Now curated by Radicants, Monnaie de Paris, Paris, France
 Lunar Effect: Mirrors, Crystals and Constellation of Cup Marks,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Baronian Invites Parliament Gallery, Baronian, Brussels, Belgium
- 2023 Là où nos mondes se touchent, Institut français X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Let's Dance Sufi!, Oil Tank Culture Park, Seoul, Korea
- 2022 Iridescen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sidency Goyang, Goyang, Korea
 Middle Earth: Pro-duzione, Ancient E-Land foundation space, Seoul, Korea
- 2021 Young Korea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wacheon, Korea
 TRIPLE RINGS: Replicas from the yesterday, tomorrow, Culture Station 284, Seoul, Korea
 Where All Places Are,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Trajectories, Schema Art Museum, Cheongju, Korea
- 2020 Media Symphony,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 2019 Thread Volume II: Conditions for Another Motion, Seoul Art Space Mullae, Seoul, Korea

Performances/Projects

- 2023 SIWOLSANGDAL threading dance, Performance in the exhibition YOU SEMINAR TO THE EARTH, Seoul Art Space Mullae, Seoul, Korea
 MMCA Cheongju Performing Arts 2023: Relay Performanc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Cheongju, Korea
- 2022 Performance in the exhibition Méné Méné Tekel Upharsin, Soorim Art Center, Seoul, Korea
- 2021 Performance in the exhibition Young Korea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wacheon, Korea
- 2017 Museum Live #5,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Nuit de la Création, E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 Versailles, France
- 2016 Nuit Blanche projet off, Basilique Sainte-Clotilde, Paris, France

Residencies

- 2025 The 19th SeMA Nanji residency, Seoul, Korea
- 2024 The 15th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 2023 Centre CLARK, International exchange residency program wi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Montréal, Canada
 Institut français X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residency, Paris, France
- 2022 The 18th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residency, Goyang, Korea
- 2020 The 16th Kumho Art Studio, Icheon, Korea
- 2019 The 13th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2016 La Générale residency, Paris, France

Collection

Cheongju Museum of Art